

## 국어다운 번역을 위하여

강주현 · 번역가

‘국어다운 번역’이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답다’는 ‘성질이 나 특성이 있음’을 뜻하는 접미사이다. 결국 한국어다운 번역이란 한 국어 문법을 충실하게 지킨 번역이란 뜻이다. 한 나라의 언어는 단어와 문법으로 이루어진다. 문법은 ‘단어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문법은 단어의 배열을 결정하는 규칙이다. 따라서 단어를 배열할 때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문법에는 문장 부호도 포함된다. 영어를 예로 들면, 영어의 문장 부호는 형태에서나 사용법에 있어서 우리의 문장 부호와 다르다. 따라서 영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는 문장 부호까지 적절하게 옮겨야 한다. 문법을 넓게 해석하면, 단어의 쓰임새도 문법에 속한다. 예컨대 우리말에서 ‘허락하다’의 주어로는 사람만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 permit는 사물도 주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Cash machines permit us to withdraw money at any time.(현금 인출기는 당신에게 어느 때나 돈을 인출하는 걸 허락한다. → 현금 인출기 덕분에 우리는 돈을 어느 때나 인출할 수 있다.)’이란 문장도 성립된다. 이런 관점에서 번역을 정의하면, 우리말 문법에 맞추어 우리말에 속한 단어들을 적절하게 배열하는 작업이 된다.

우리말을 어지럽히는 원흉으로 번역이 지목되는 이유를 곰곰이 분석

해 보면, 번역가가 영한사전의 정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갖는다’가 포함된 문장이다. “뉴턴의 이론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결점도 가지고 있었다.(Newton’s theory did have a flaw in its beauty.)”는 “뉴턴의 이론에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결점도 있었다.”라고 번역했다라면 훨씬 읽기 편안했을 것이고, 우리말다운 번역이 됐을 것이다. ‘가지다’는 have가 쓰인 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전치사 with가 쓰인 예에서도 우리말답지 않은 번역을 찾을 수 있다. “이론의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이 결점 역시 충분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Like the beauty of the theory itself, this flaw, too can be understood completely only with a sufficient amount of background knowledge. → 이 결점 역시 충분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영어의 have와 우리말의 ‘가지다’가 쓰이는 용례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이다. 번역가가 우리말다운 어법에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어색한 표현이다. 번역가가 영한사전의 정의를 충실하게 받아들여 원문을 번역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우리말답지 않은 번역의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번역가에게 있다.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우리말에는 필요 없는 군더더기가 붙어 번역문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에 있어서’이다. “아이들은……종교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이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알 수 없다(……children are too young to know where they stand on such issues,).”에서 ‘종교 문제에 있어서도’는 ‘종교 문제에서도’로 간략하게 번역해도 충분했다.

위에서 언급한 예에서 보듯이, 번역문 자체가 문법적으로 틀리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번역이 우리말답지 못하다는 말이 자주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법적인 글이라고 우리말다운 글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 문법적인 글과 우리말다운 글의 차이는 무엇일까? 입말과 글말의 차이일까? 언어학에서 입말은 글말이 되지 못하지만 글

말은 입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을 너무 과장되게 받아들여 입말이 글말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는 말이란 인식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어학에서 “입말은 글말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문법성 때문이다. 문법을 정확히 지키면서 입말, 즉 민중 언어로 번역한다면 한층 우리말다운 번역이 가능할까? 입말이 우리말다운 것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번역이 우리말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잘못 배운 탓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단어를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말에 해당되는 단어로 대응시키는 식으로 배운 탓이다. 물론 번역가라면 문맥을 통해서 단어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10만 단어가 넘는 책을 번역하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번역가가 번역할 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전(예, 영한사전)이 한국어다운 번역을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할 때가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외국어 사전의 뜻풀이가 아닌 단어 풀이에서 영향을 받은 한국어답지 않은 번역을 ‘-의’를 비롯해서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외국어의 어법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인용되는 예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말답게 고칠 때 인용문이 한결 편안하게 읽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 1. 조사가 남용되는 예: ‘-의’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말에서 조사는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이다.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또 영어에서 of를 꼬박꼬박 번역하면서 가장 흔히 남용되는 조사가 ‘-의’이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우리말 바로 쓰기’에서도 ‘-의’를 남용하는 것은 일본어의 영

향으로 볼 수 있다며, ‘효과적인 읽기의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와 같이 쓰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와 같이 쓰는 것이 우리말에서 더 자연스럽다고 말한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명사구와 문장이 상응 관계에 있으므로, ‘-의’로 구성된 명사구에서 중심인 명사를 동사로 풀어쓰면 우리말답게 변하고 이해하기도 쉽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물질의 불안정성의 영향을 직접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물질의 불안정성에서 직접적으로 영향 받기 때문이다.  
 맥스웰 방정식으로 에너지 손실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 맥스웰  
 방정식으로 에너지가 손실된 양을 계산할 수 있다.

바로 위의 예에서, 아예 ‘-의’를 생략해서 에너지 손실량이라 번역하면 더 한국어답다.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바로 쓰기’에서도 관형격 조사로 쓰인 ‘-의’는 일반적으로 ‘영희 책, 철수 누나’와 같이 소유나 친족 관계를 나타내거나 ‘책상 서랍, 학교 운동장’과 같이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 생략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의’를 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의’를 생략할 때 훨씬 우리말답다.

종교가 전문 분야라고 주장할 만한 고유의 영역이라 해도(→ 고유 영역)  
 인간사에 간섭하고 …… 우리의 생각을 읽고 죄를 벌하고 기도에  
 답하는 신(→ 우리 생각)  
 그러나 당신의 부모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 부모)

그러나 ‘-의’가 친족 관계를 나타내거나,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나타내더라도 앞의 체언이 3인칭 대명사로 쓰이면 이 원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종교관’은 ‘그 종교관’으로 쓰이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말에서 원래 ‘그’라는 대명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원래

없었던 단어를 관형사적으로 사용하려 하니 ‘-의’가 생략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한편 ‘-의’를 다른 격조사로 바꾸면 더 나올 때가 있다. “자연신은…… 수학자들의 처음이자 끝이며(The deist God is……the alpha and omega of mathematicians)”에서 ‘수학자들의’를 ‘수학자들에게’로 바꾸면 어떻게 읽힐까? 적어도 ‘-의’가 쓰인 경우보다는 자연스럽게 읽힌다. 이처럼 ‘-의’ 대신에 다른 격조사로 바꾸면 훨씬 더 한국어답게 읽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철학적 자연학자라는 의미의 무신론자는……몸보다 오래 사는 영혼은 없다고 믿는다.(→ 의미에서)

영국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지도자인 로버트 윈스턴(→ 영국 유대인들에게)

논쟁의 양 당사자가 각각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인용할 만한(→ 논쟁에서)

인격신 외의 다른 신은 없다.(→ 외에)

당신이 생각하는 빨강은 나의 초록이거나……(→ 나에게는)

지구 주변의 변하는 중력장. 특히 완전한 구가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다른 격조사를 사용하면 더 한국말다워지는데 굳이 ‘-의’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원문에 of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예문의 원문을 보면 각각 ‘respected pillar of British Jewry’와 ‘both sides of an argument’이다. of가 포함 관계와 관련성도 뜻한다는 걸 간과했기 때문이다. 영어에서 of는 지금 우리말에서 ‘-의’만큼이나 다양하게 쓰인다.

위에서 언급한 예들은 ‘-의’가 사용되더라도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국어사전에서 ‘-의’의 뜻풀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는 앞 체언과 뒤 체언에 무척 다양한 관계를 부여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소개하는 책을 읽을 때는 ‘-의’가 문장의 정확한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인문학을 전공한 독자가 대중 과학서를 읽을 때 이런 어려움에 부딪친다. 아래의 예를 보자.

일반상대성이론은 공간과 시간의 위치 의존적인 변환을 허용하며  
시공간에 휘어진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자연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는 위의 예에서 ‘공간과 시간’이 ‘위치 의존적인 변환’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헷갈린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공간과 시간에게 위치 의존적인 변환을 허용하는 것인지, 일반상대성이론이 공간과 시간에서 위치 의존적인 변환을 허용한 것인지 위의 번역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 어느 쪽이든 번역가가 ‘-의’ 대신에 다른 조사, 즉 관계를 명확히 해 주는 조사를 썼더라면 독자가 이해하기 한결 쉬웠을 것이고 한국어다운 번역이 됐을 것이다.

‘-의’가 접속 조사 ‘-과’와 함께 쓰일 때는 더욱 헷갈린다. “희극과 비극의 양극단을 정신없이 오간 우스꽝스러운 일화였다.(a ludicrous episode, which veered wildly between the extremes of comedy and tragedy)”라는 문장을 보자. 무슨 뜻으로 번역했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희극과 비극 사이를 오간 일화였다는 뜻이다. “공간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중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서 변화가 공간과 시간 모두에 관련된 단어로 쓰일 수 있듯이, 양극단도 희극과 비극 모두에 관련될 수 있다. 희극과 비극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of를 동격으로 처리해서, “희극과 비극이란 양극단을…….”이라고 번역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의’를 사용하지 않고, “희극과 비극, 양쪽을…….”이라 번역했어도 좋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의’의 풀이를 보면 복잡하기 이를 데 없어 이해하기 힘들다. 여하튼 ‘-의’의 용례들을 보면 ‘체언 뒤에 붙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에서 제시된 스무 가지 용례에서 ‘-의’

는 모두 ‘체인 뒤’에 쓰인다. 그런데 스물한 번째로 주어진 마지막 용례에서는 “앞 체언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며, 앞 체언이 뒤에 연결되는 조사의 의미 특성을 가지고 뒤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가짐을 나타내는 격 조사”라는 설명과 함께 ‘구속에서의 탈출’, ‘저자와의 대화’가 예로 제시된다. 하기가 요즘 이런 어법이 우리말 소설에서도 흔히 쓰여 번역글에서도 아무런 의식 없이 쓰인다.

휘어진 공간에서의 움직임이 회전을 강요하듯이 휘어진 시간에서  
의 운동은 속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론의 오류는 결국 기초적인 기술로서의 일반상대성이론을 버리  
거나 확장하도록 강요한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달라져 낮인 부분과 밤인 부분의 태양 중  
력이 약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앞의 사례와의 중요한 차이점은 관측자의 역할이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1975년 판(하지만 판권 설명을 보면 1961년 초판과 똑같다.) 이희승 님의 국어대사전을 보면, ‘-의’는 “체인에 붙어 관형격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간략히 설명돼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이오덕 님과 이수열 님의 글을 보면 ‘-의’가 함부로 쓰여, 특히 위의 예처럼 다른 조사들에도 덧붙여서 우리말이 처참하게 변질됐다고 한탄한다. 그래도 이런 용례들이 번역글뿐 아니라 우리말 소설에서도 자연스럽게 쓰이고, 더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이런 용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답지 않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래도 처음 세 예문에서 ‘-의’를 뺀 채 읽어보라. 훨씬 낫지 않은가? 또 세 번째 예문은 “앞의 사례와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점은 관측자의 역할이다.”로 바꾸면 어떤가? 여하튼 요즘에는 ‘체인+격조사+-의’의 표현이 그다지 부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는 지경이 됐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말답게 들리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번역이 간혹 눈에 띈다.

아무 역설도 담겨 있지 않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담은 “이슬람을  
 폭력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자들을 참수시키자.”라는 표어들이 보였다.  
 이들은 서로의 주위를 돌고 있는 두 개의 별로 된 이중성 체계로……

위의 예에서 ‘그대로’는 부사이다. 부사 뒤에 쓰인 ‘-의’의 타당성은  
 어떤 식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문자 그대로’를 관용구로 보더라도 부  
 사이지 명사는 아니다. 가령 ‘태양으로부터’가 부사구로 ‘-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대로의’가 쓰인 것으로 보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예에서 ‘서로의’는 표준국어대사전  
 의 설명에 따르면 문법적으로 흠이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서로’  
 가 명사로도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희승 국어대사전에서  
 ‘서로’는 부사일 뿐이다. 따라서 이희승 님의 기준에 따르면 ‘서로의’는  
 ‘그대로의’와 똑같이 문법적으로 잘못 쓰인 예이다. 결국 ‘서로’가 1961  
 년 이후에 명사로도 인정됐다는 뜻이다.

## 2. 조사가 남용되는 예: 조사 + 조사

우리말에서는 조사가 자유롭게 결합된다. “저를 저 끔찍한 들장미  
 덤불에만 던지지 말아주세요!”처럼 두 조사가 고유의 의미를 갖고 다  
 른 조사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무의미하게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도 많아 문장 전체를 무겁게 만든다.

대표적인 예로 ‘-의’만큼이나 조사 뒤에 덧붙여지는 조사가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는’이다. 먼저 실제로 ‘-는’이 쓰인 번역문들을 보자.

매카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 주는 휴대폰의 기능은 이슬람권에서  
 는 매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증거보다는 사적인 계시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전통들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원래의 12컷짜리 만화와는 달리, 추가된 3컷은 정말 모욕적이었다.

앞뒤의 문장을 읽어 봐도 굳이 강조를 뜻하는 ‘-는’을 덧붙일 이유가 없는 예문들이다. 하기야 요즘 우리 말투가 점점 강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체언 뒤에 쓰인 조사에서 강조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는’을 덧붙일 필요는 없고, 군더더기에 불과해서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실험을 해보자. 첫 번째 예에서 ‘이슬람권에서는’을 문두로 이동해보자. 그럼 대다수의 언중이 그 이후의 문장을 “메카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 주는 휴대폰의 기능이 매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반면에 “이슬람권에서”를 문두에 놓으면 “메카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 주는 휴대폰의 기능은 매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보다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교의 대상에 덧붙여지는 조사 ‘-보다’의 뒤에 거의 습관적으로 ‘-는’이 덧붙여진다(다른 예: 이는 수성의 경우보다는 훨씬 큰 값으로……). 반면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동의어로 언급한 ‘-에 비하여’는 그렇지 않다. 이처럼 격조사 뒤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강조하는 습관 때문에 덧붙여지는 ‘-는’이 문장 자체를 무겁게 만든다.

영어 from을 번역하거나,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로부터’도 두 조사가 결합된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부모의 종교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막연한 느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합당한 동의를 얻은 적이 결코 없다.(→에게서)

성공회의 설립은 신을 종교로부터 분리시켰지만(→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로부터’는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라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번역문은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글은 이런 식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언중의 말에서 ‘-로부터’를 듣기는 무척 힘들다. 그 때문인지 어딘지 갑갑하게 들린다. 옆에 고쳐 쓴 것처럼 하나로만 이루어진 조사로 바꾸어도 충분하다. 이처럼 하나의 조사로만 충분한 경우에도 영한사전의 단어 풀이만을 좇을 때에는 우리말답지 않게 들린다.

### 3. 우리말다운 번역을 위하여

지금까지 조사를 중심으로 우리말다운 번역이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적어도 조사 부분에서 우리말다운 번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조사의 남용이다. 조사를 남용하는 탓에 조사가 꼬리를 물고 연이어 쓰이기도 한다. 복잡한 것은 부자연스럽다. 같은 뜻이라면 조사들을 결합해 전달하는 것보다 하나의 조사로 전달하는 편이 낫다. 언중이 입말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번역이 돼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 유행하는 단어를 쓰라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한테’는 ‘-에게’와 똑같이 쓰일 수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구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지 번역글에서 ‘-한테’가 사용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번역이 간혹 한국어답지 못하다고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의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를 주제로 글을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나는 국어 문법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았다. 나 자신도 놀랐지만, 내가 외국어를 전공한 탓인지 국어 문법을 정통으로 다룬 책이 없었다. 고영근·남기심의 《표준국어문법론》을 서둘러 구해 읽었다. 내가 부족한 탓이겠지만 용어부터 어색해서 읽기 어려웠다. 내 친짐에 이수열의 《우리말 바로쓰기》와 이오덕의 《우리글 바로쓰기》(3

권)를 다시 읽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지만, 외국어의 영향으로 어지럽혀진 우리말의 실태를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는 같았다. 그들의 지적은 내가 번역하면서 자주 저질렀던 잘못이었다. 너그러운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잘못은 아니었지만, 이오덕과 이수열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었다.

이쯤 되면, 국어다운 번역을 위한 방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원문도 어차피 단어의 나열이고, 그 단어들도 의미적으로 서로 화합한다. 번역할 때도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 된다. 단어를 문법에 맞게 나열하되, 그 단어들이 서로 화합하도록 나열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조사의 번역을 예로 들어 그런 화합을 살펴보았다. 조사만 적절하게 번역해도 훨씬 국어다운 번역이 되는 걸 확인했다. 이는 직역과 의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 외 수백의 신들은 모두 한 신의 서로 다른 모습이나 화신이기 때문이다.(Hundreds of others, all are just different manifestations or incarnations of the one God.)”를 “그 외 수백의 신들은 모두 한 신이 가지각색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라고 번역한다고 의역이라 할 수는 없다. manifestation의 영영사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밀스런 것을 널리 보여줌’이고, incarnation은 ‘주로 신이 취하는 구체적인 형상’이다. 이런 개념을 한국어답게 버무려 번역한 것일 뿐이다. 또 영어에서 명사로 쓰였다고 우리말 번역에서 명사로 번역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영어 단어에 감추어진 뜻을 얼마나 충실하게 우리말로 변환하느냐는 것이다. 결국 국어다운 번역을 위해서는 외국어의 구조도 당연히 숙달해야겠지만, 원문의 단어들을 우리말로 옮길 때 주변 단어들과 화합 가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며, 그 화합 가능성은 입말에 가까울수록 좋다.

\* 이 글에서 사용한 예문들은 모두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과 마르틴 보요발트의 《빅뱅 이전》에서 인용한 것이다.